

11일 KOSDAQ이 4.15% 하락해 KOSPI의 하락률 1.83%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3월과 7월을 제외하곤 KOSDAQ이 KOSPI 대비 수익률이 부진하고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KOSDAQ 기업들의 전환주 리픽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증없는 주식증가

KOSDAQ 주가와 기업들의 리픽싱 공시는 상관성이 높다. 올해도 주가 하락의 가을기가 가팔랐던 2월과 7월에 리픽싱 공시가 가장 많았다. 보통 주가 하락률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비율과 늘어나는 전환가능 주식수를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픽싱을 공시한 기업이 KOSDAQ150에 속해있다면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KOSPI보다 KOSDAQ이 부진한 이유다.

Featured Charts

3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됐다. 지난 7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은 올해 KOSPI 영업이익의 역성장 가능성을 말해준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난주 외국인 액티브의 순매수 강도는 이익을 끌어내린 반도체에 집중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IT S/W 대비 IT H/W의 상대 PER도 2015년 이후 최대로 올라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반도체의 상황은 오히려 이전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목 차

I. 유증없는 주식증가.....	2
II. Featured Charts	4

I. 유증없는 주식증가

KOSDAQ의 리픽싱 11일 KOSDAQ이 4.15% 하락해 KOSPI의 하락률 1.83%를 크게 밑돌았다. 올해 3월과 7월을 제외하곤 KOSDAQ이 KOSPI 대비 수익률이 부진하고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KOSDAQ 기업들의 전환주 리픽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림1,2]에서 보는 것처럼 KOSDAQ 주가와 기업들의 리픽싱 공시는 상관성이 높다. 올해도 주가가 하락하던 2월 149건, 7월 119건으로 리픽싱 공시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양호했던 4월에는 공시가 63건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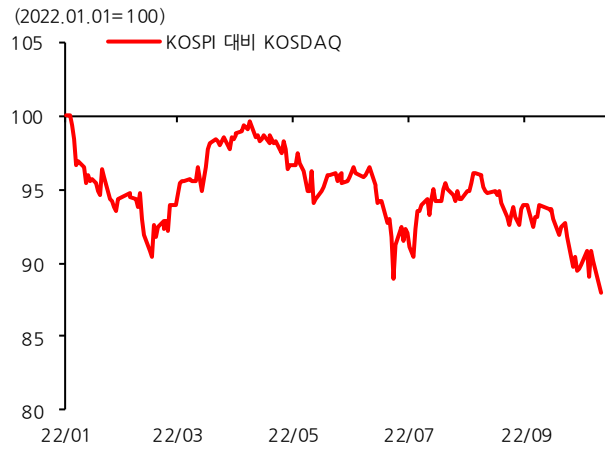
최근 주가 하락의 기울기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 11일에만 12건의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조정이 공시됐다. 전환가액은 -3%에서 -28%까지 조정됐고 이에 비례해서 주식수는 늘게 된다.

올해 들어 월 평균 104건의 리픽싱 공시가 나왔다. 기업 수는 319개다. IT가 104개, 헬스케어가 77개 순으로 많았고 KOSDAQ의 섹터별 상장 기업수 대비로는 헬스케어에서 공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다른 섹터들은 리픽싱을 하는 기업들 중 KOSDAQ150에 속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10% 미만이지만 헬스케어는 KOSDAQ150 기업이 17%로 높았다. 인트론바이오, 헬릭스미스, 셀리버리 등은 3~4개월 간격으로 올해 2회 이상 전환가액을 하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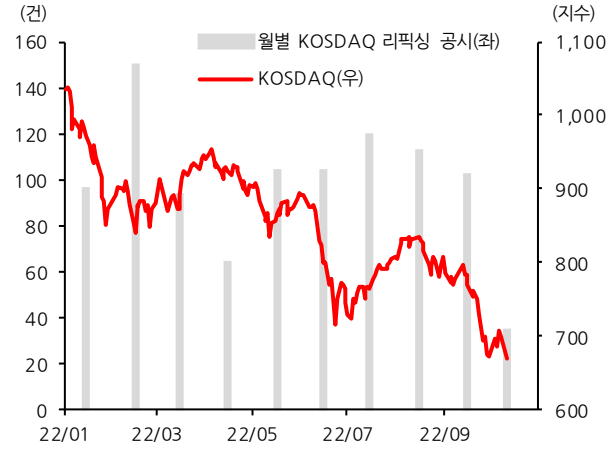
올해 KOSDAQ은 유틸리티를 뺀 모든 섹터가 하락했고 리픽싱 공시가 있었던 종목들은 동일 섹터 대비 하락률이 더 컸다. 보통 주가 하락률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비율과 늘어나는 전환가능 주식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픽싱을 공시한 기업이 KOSDAQ150에 속해있다면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KOSPI보다 KOSDAQ이 부진한 이유다.

[그림1] KOSDAQ 상대적 부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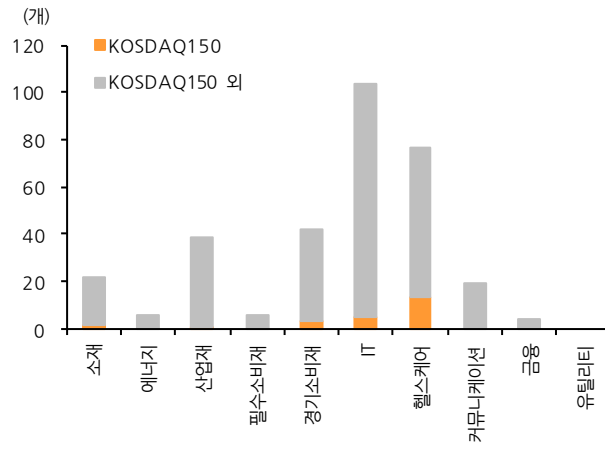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올해 전환가액 조정 공시 월평균 10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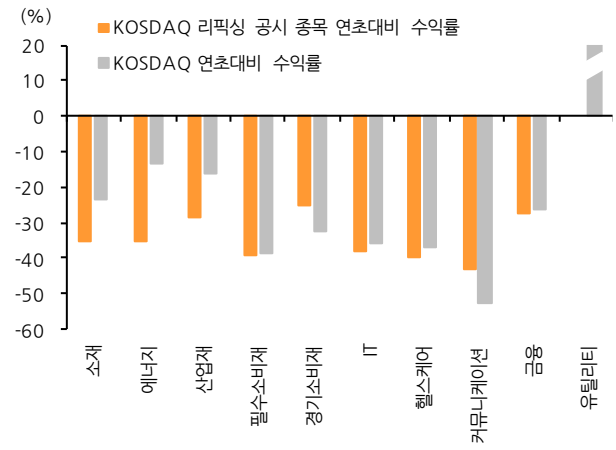
자료: DART,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헬스케어는 KOSDAQ150 기업들의 리픽싱 많아



자료: DART,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리픽싱 있는 종목이 상대수익률 부진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 Featured Charts

[그림5] KOSPI 지수 및 시가총액

(2015/01=100)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KOSDAQ 지수 및 시가총액

(2015/01=100)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KOSPI vs. KOSPI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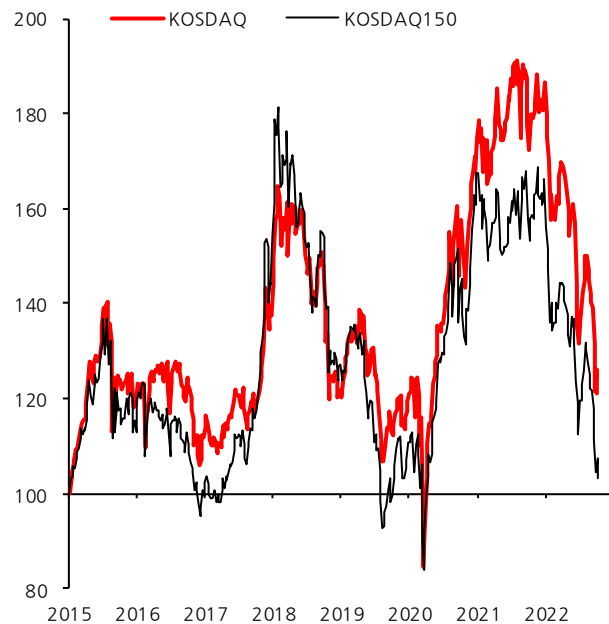
(2015/01=100)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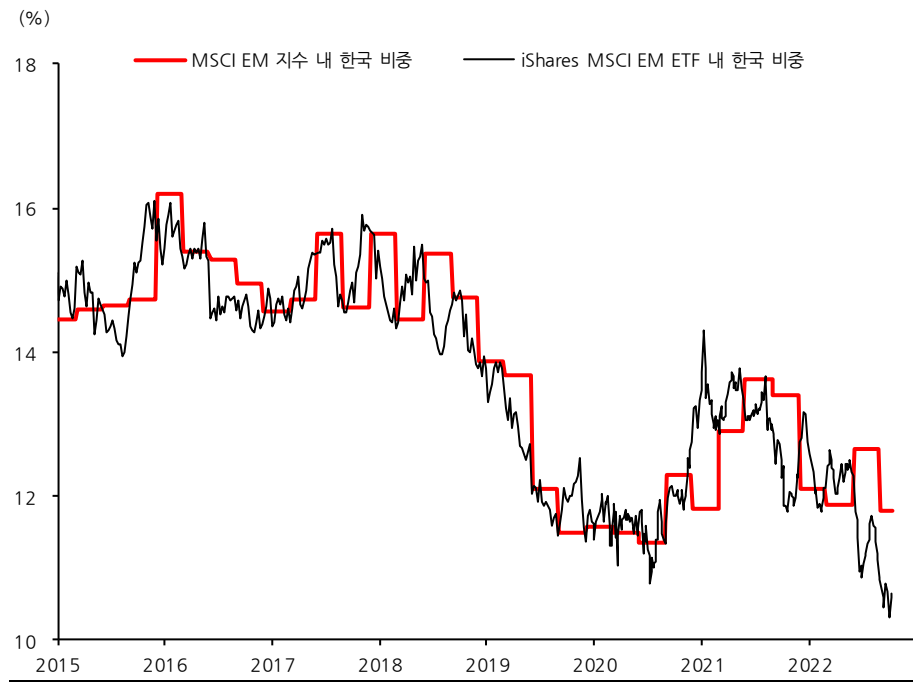
[그림8] KOSDAQ vs. KOSDAQ150

(2015/0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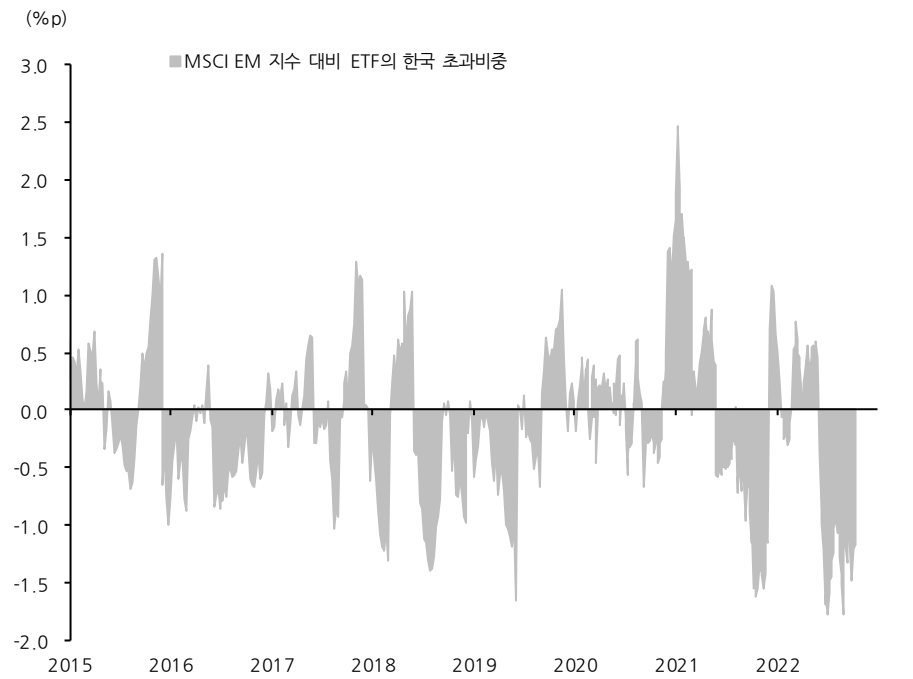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MSCI EM 지수와 추종 ETF의 한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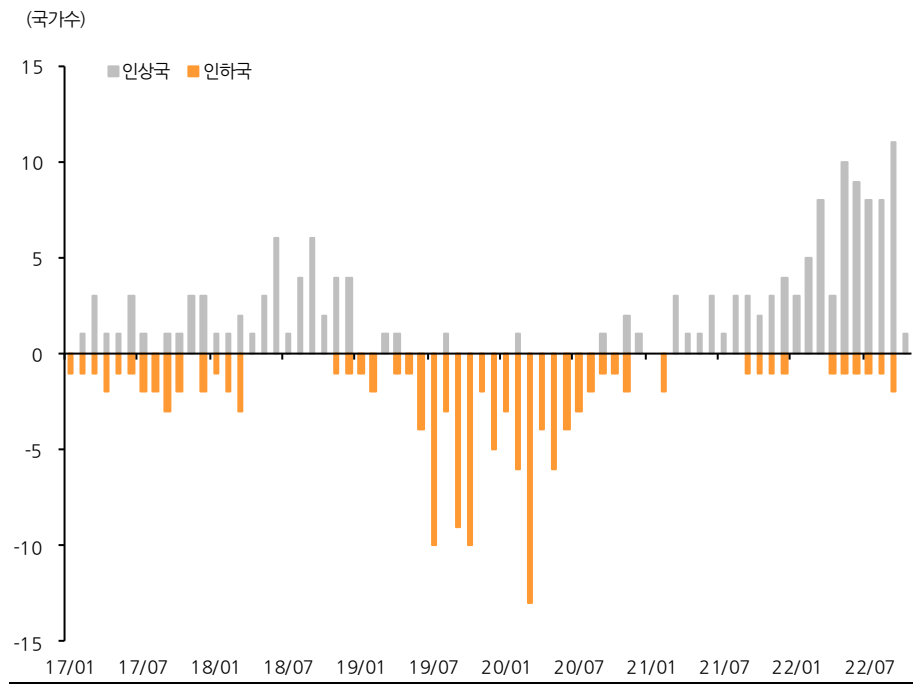
자료: MSCI,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MSCI EM 지수 대비 ETF의 한국 OW/UW



자료: MSCI,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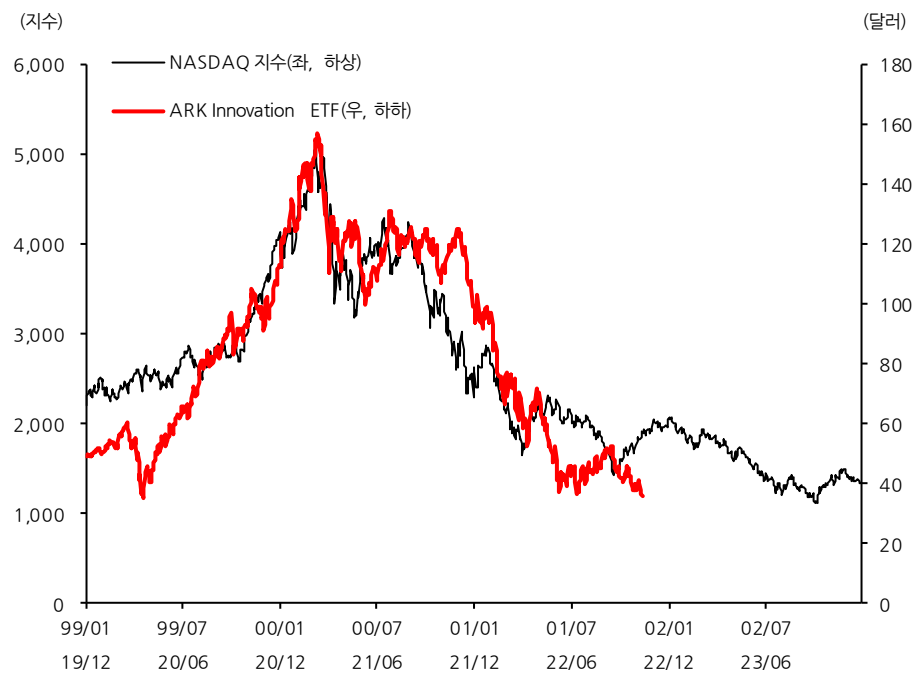
[그림11]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국/인하국 수



주: G20 국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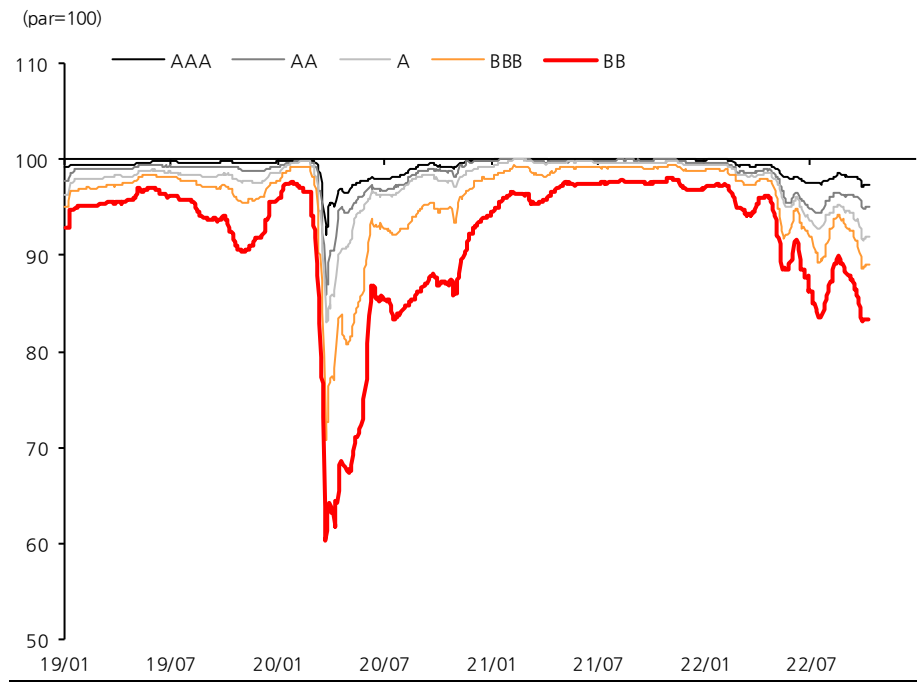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성장주 2000 vs. 성장주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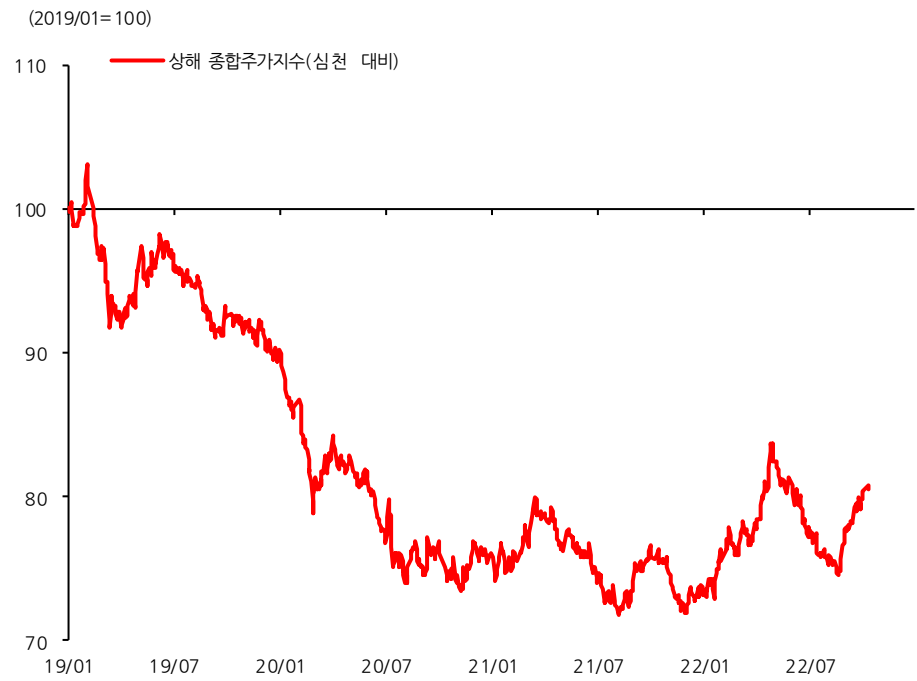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CLO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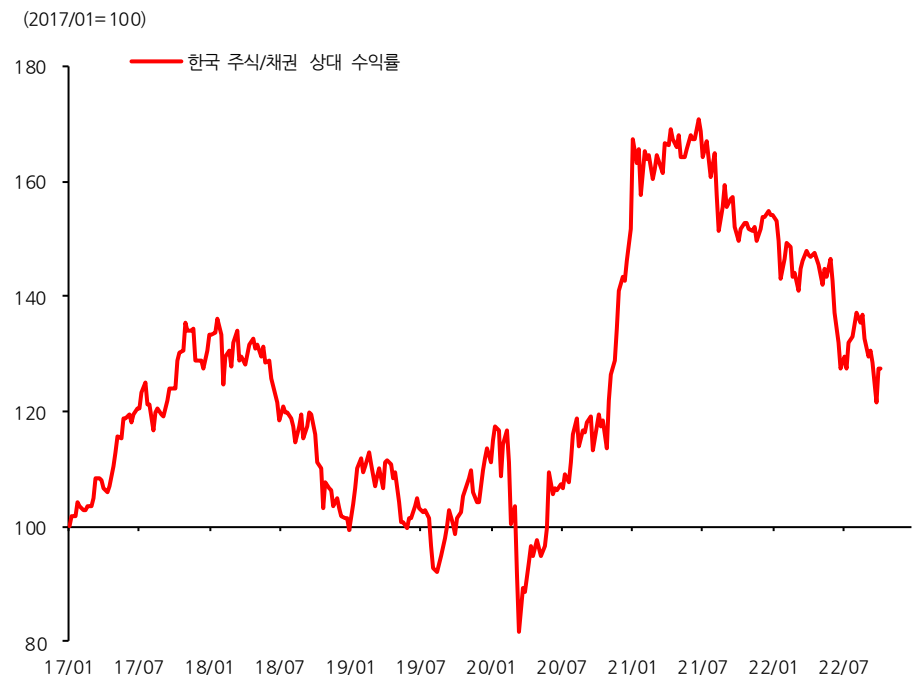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심천 대비 상해 종합주가지수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한국 채권 투자 대비 주식 투자 상대 수익률



주: 주식은 MSCI Korea Total Return, 채권은 Barclays Korea Total Re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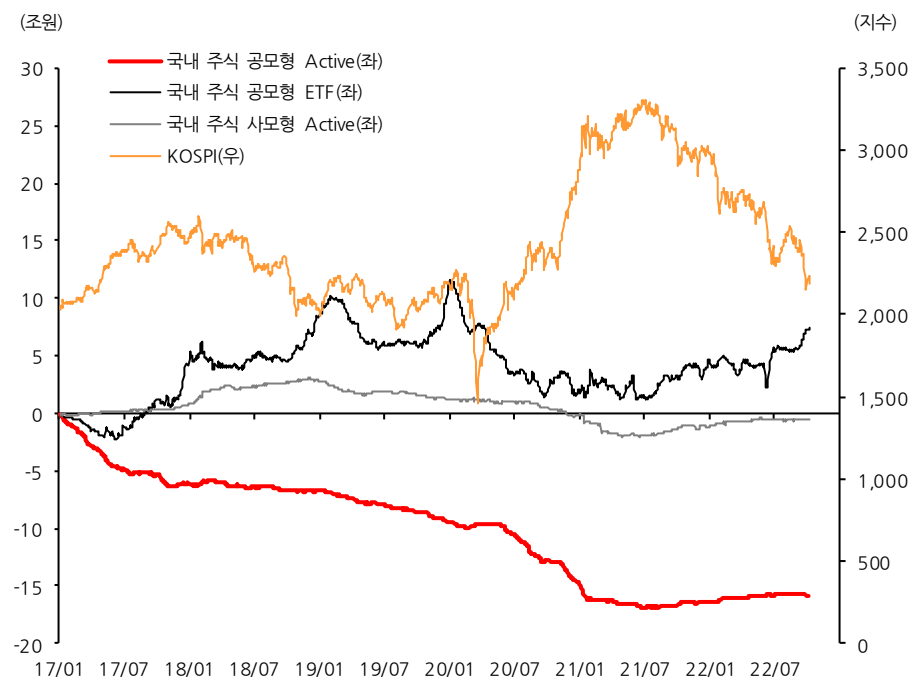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KOSPI 배당수익률 2.37% < 금리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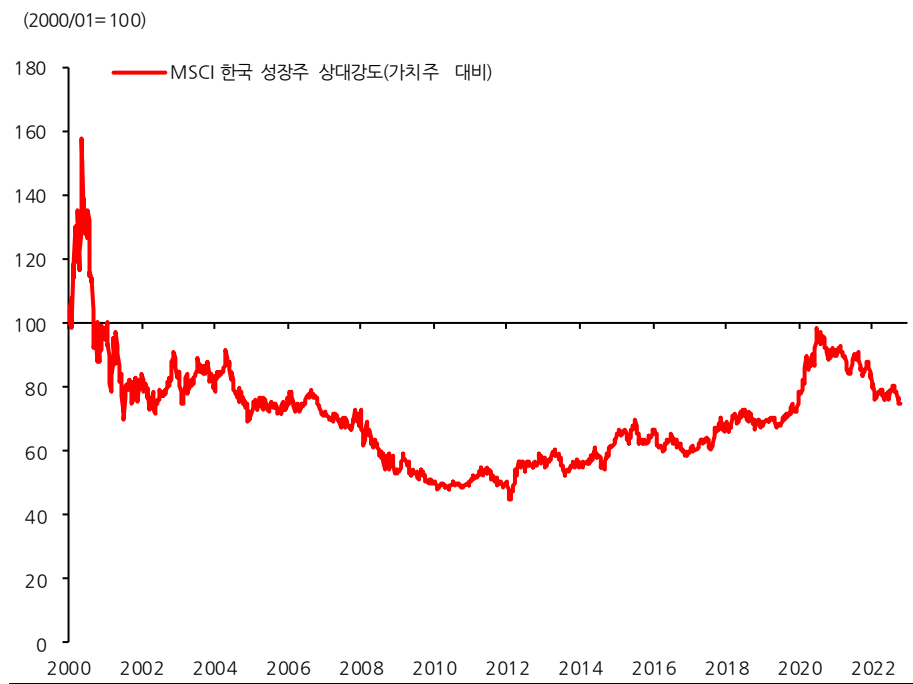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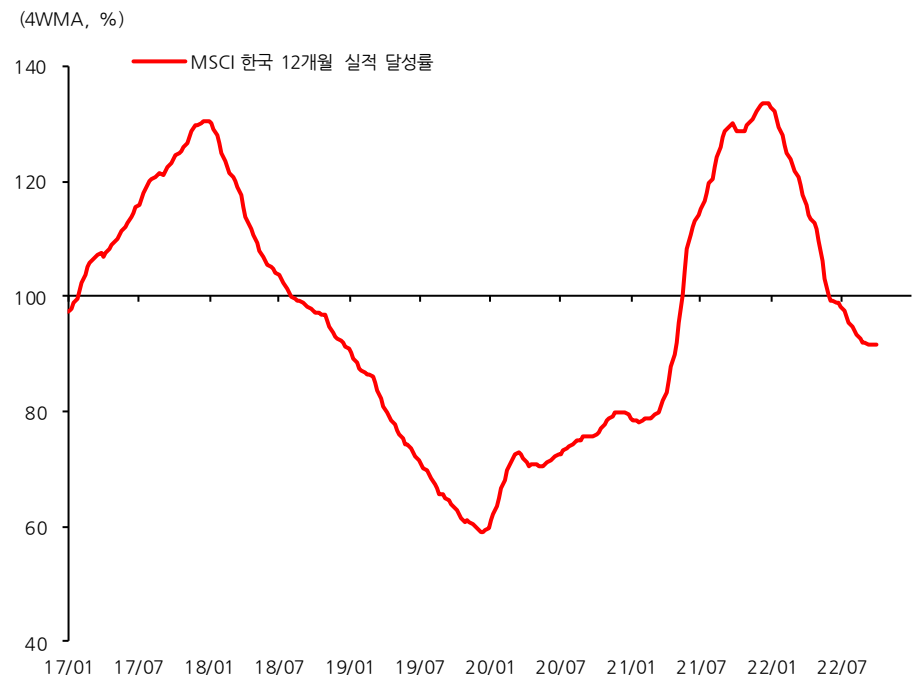
[그림17] 국내 주식 자금 흐름



[그림18] 한국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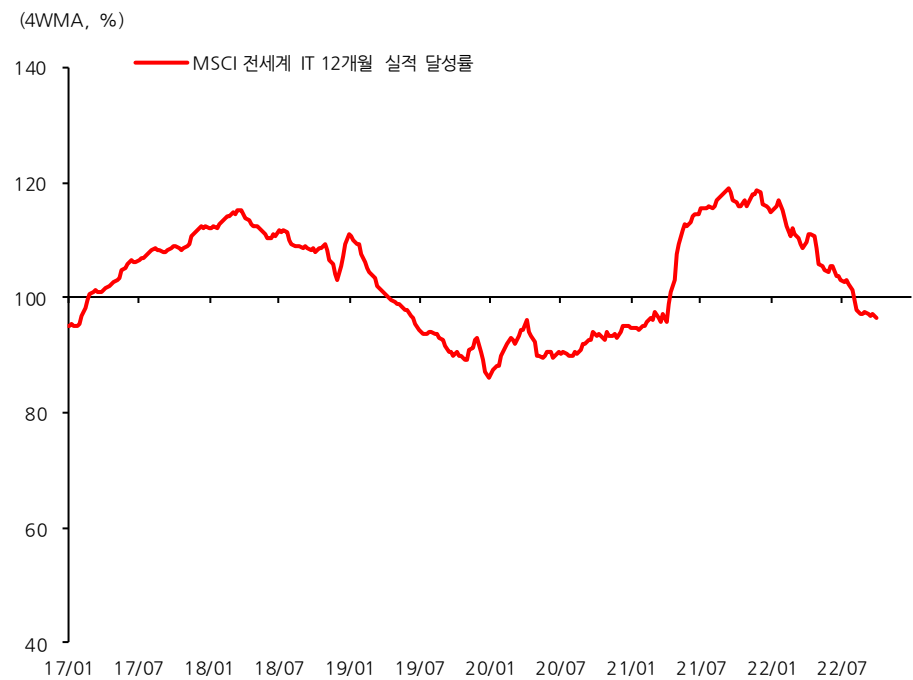
[그림19] MSCI 한국 12개월 실적 달성률 91.6%



주: 12개월 후행 EPS 대비 1년 전 12개월 선행 EPS 비율

자료: Refinitiv,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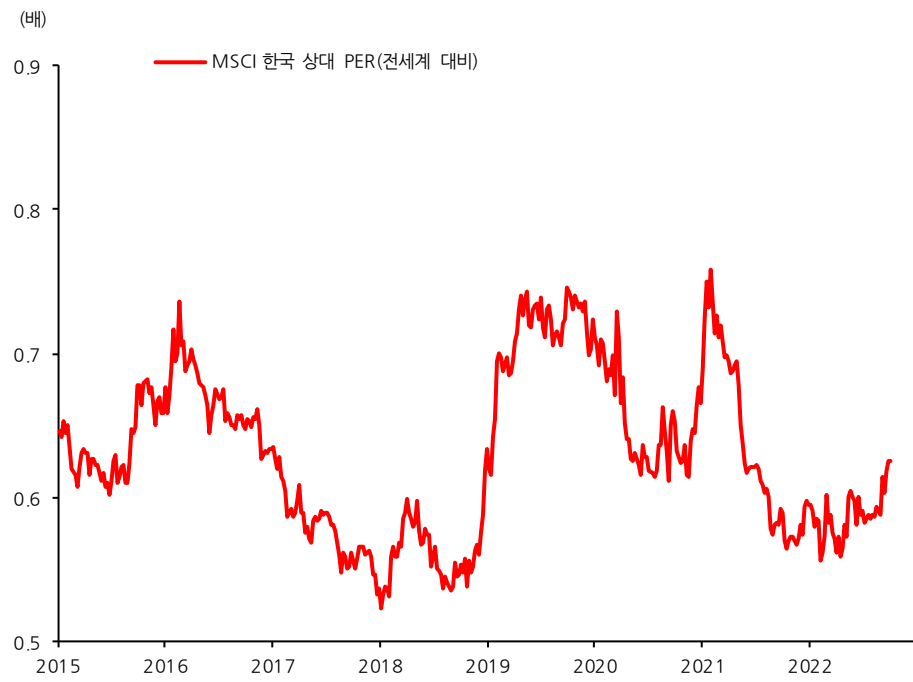
[그림20] MSCI IT 12개월 실적 달성률 96.5%



주: 12개월 후행 EPS 대비 1년 전 12개월 선행 EPS 비율

자료: Refinitiv,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MSCI 전세계 대비 한국 상대 PER 0.62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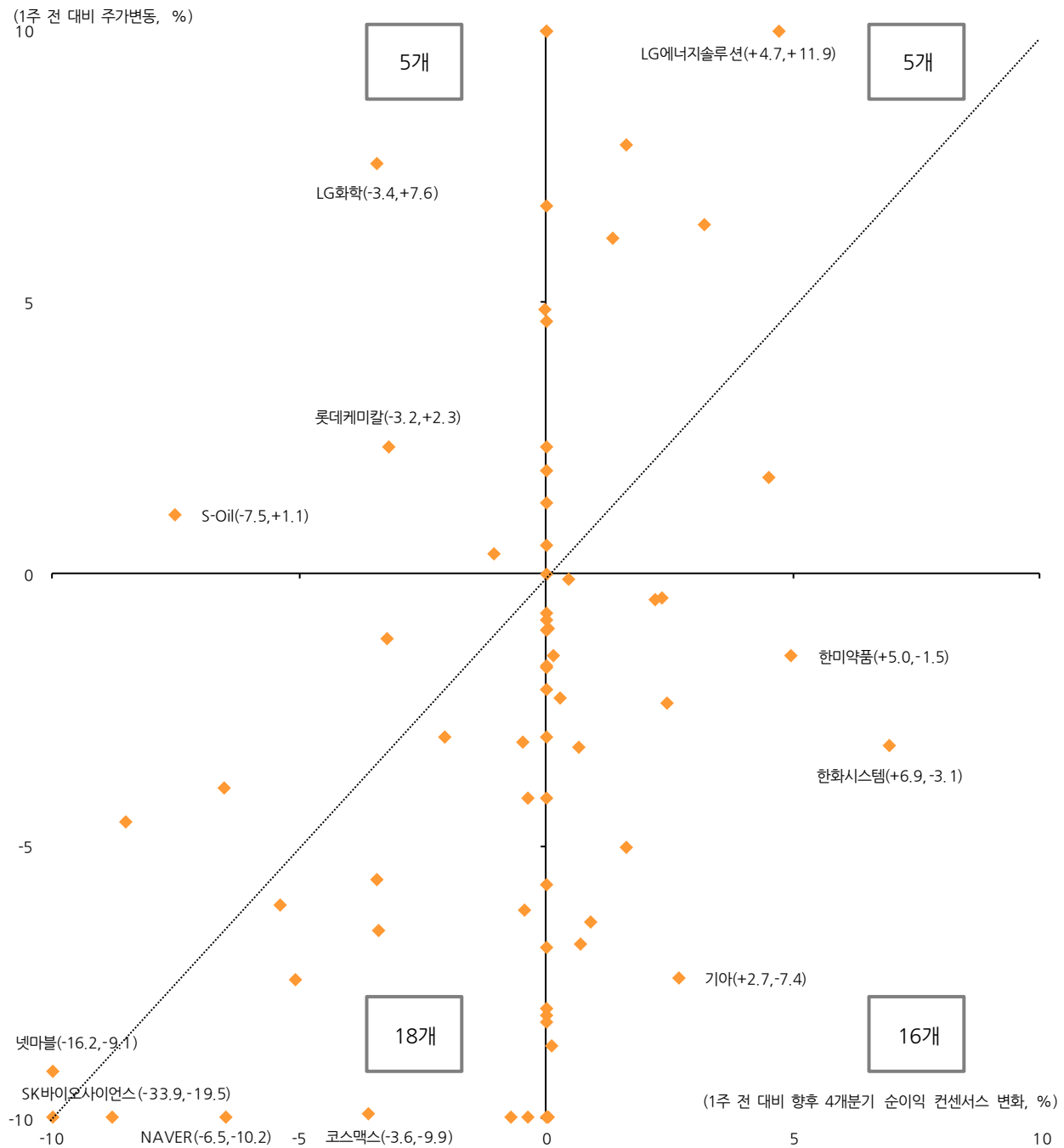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MSCI IT S/W 대비 IT H/W 상대 PER 0.78 배



자료: Refinitiv,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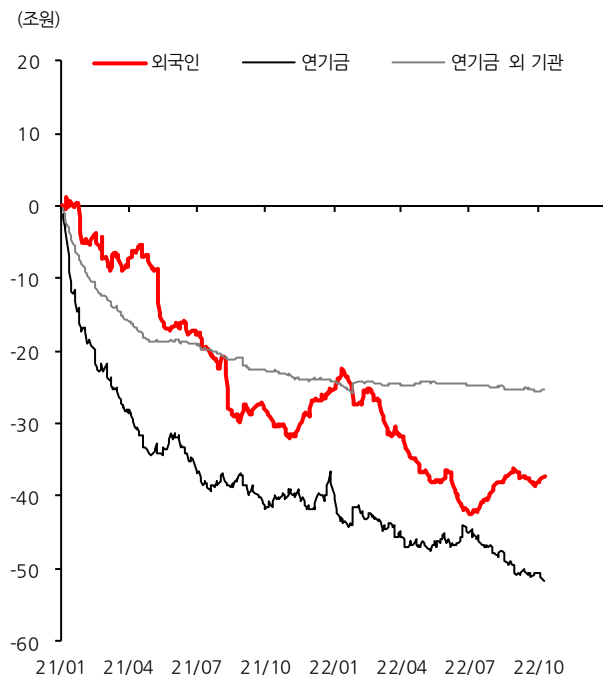
[그림23] KOSPI200 순이익 컨센서스 vs. 주식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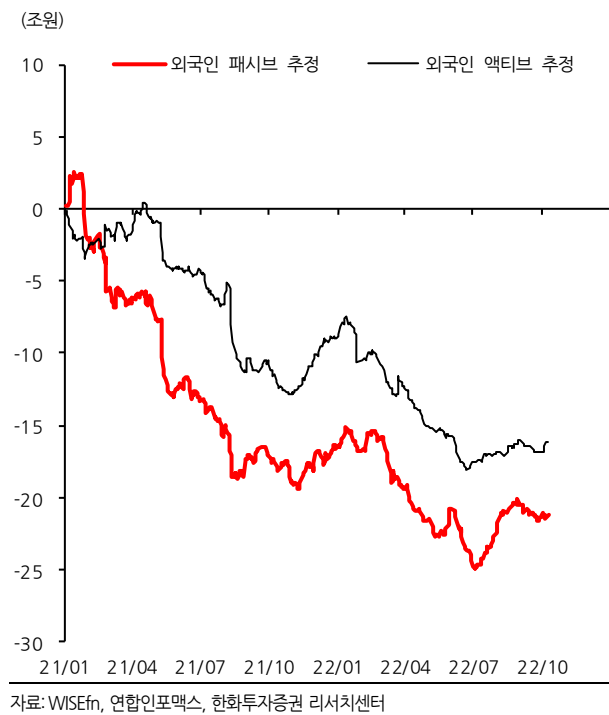
주: KOSPI200에서 향후 4개분기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67개 종목 대상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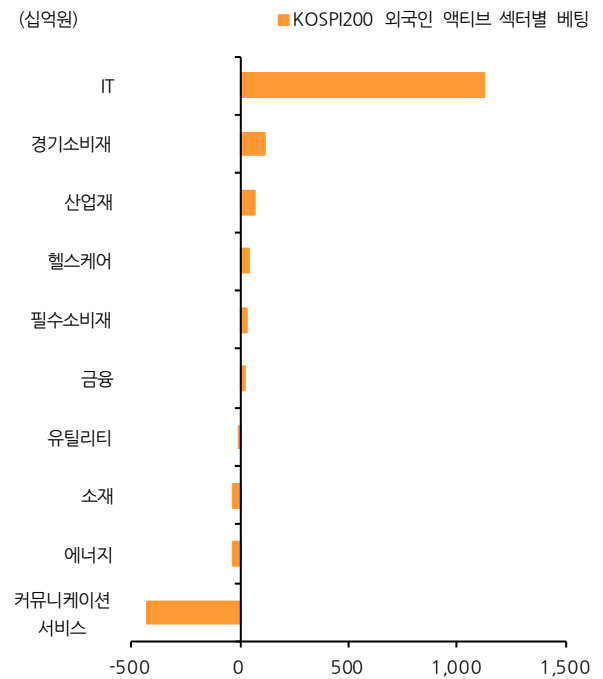
[그림24] KOSPI 수급주체별 투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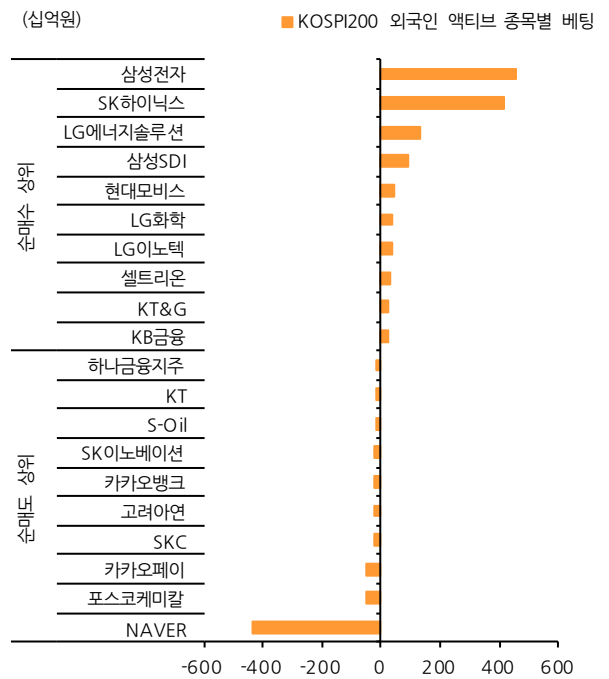
[그림25] KOSPI 외국인 패시브/액티브 추정



[그림26] 외국인 액티브 최근 1주 섹터 베팅



[그림27] 외국인 액티브 최근 1주 종목 베팅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Hanwha Investment & Securities.